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본회의 정무석 / 관심미 이디영 / 박병필 2019년 11월 29일 / 549864 / 전주시 완산구 임동1길 18(3층) / ☎ 063.905-0218 (fax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나는 민주적인가?



이사장 정우식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들목에서 오랜만에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엿그제 우리 문화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 내내 많은 상념이 오갔지만 그 뒤로도 머릿속에는 ‘민주’라는 말꼭지가 계속 따라 다닙니다. 민주주의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은 요즘 세상사 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은 이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민’도 ‘主’도 바로 ‘나’였으니까요.

‘민주’란 무엇인가? 나는 민주적인가? 생각은 계속 ‘관계의 동등함’에 머물렀다.

너와 나, 나와 남, 자연과 인간, 여와 남, 남과 여, 학생과 선생,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사용자, 자본과 노동, 상사와 부하, 친구와 친구, 형제자매...

너와 남은 또 다른 나였고, 나는 곧 인간이면서 자연, 선생이면서 학생, 소비자면서 생산자, 노동자면서 사용자, 부하이면서 상사, 자식이면서 부모이고, 누군가와 짝을 이루며 사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내 안에 공존하는 자본과 노동의 속성 또한 발견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동등함 없는 민주는 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어쭙잖은 권위와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나는 의식뿐 아니라 ‘행태’까지도 민주적인가?

나는 민주를 가르칠 뿐 아니라 ‘보이며’ 살아왔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도 민주적인가?

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정말 ‘동등해지도록’ 실천하고 행동해왔는가?

세상살이가 모두 내 뜻 같지 않을 때, 무언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그놈’들에게만 편하고 이로운 것인가? 속절없이 되뇌며 욕하고 싶을 때, 다시 주인인 ‘나’로 돌아옵니다. 화두 역시 ‘그놈’들 말고 세상의 모든 ‘민’과 ‘주인’에게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비롯할 테니까요. 평화의 바람도 거기서부터 일겠지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입니다.”라시던 법정 스님의 말씀도 다시금 봄풀처럼 돌아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해를 갈무리하는 가을의 끝자락이라 부질없이 화두를 붙들니다.

“나는 민주적인가?”

2019년 11월

글 심는순서

02 인사말 - 나는 민주적인가?

03 소식, 하나 - 제 51 차 이사회 개최

05 소식, 둘 - 11 월 교육이야기마당-교육정책 워크숍

09 소식, 셋 - 향토 역사·문화 걷기-가을 기행

11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탐방기

12 [청소년·교육시민단체 현장을 찾아갑니다]

교육현장의 나침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13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 - 영원한 여성조직 활동가,

항일투사 김마리아

14 영화이야기-함께 보는 영화 세 편

16 회원 동정, 행사 안내

제 51 차 이사회 개최

- 2020 년 사업계획 승인, 서재복 교수 자문위원 위촉 -

제 51 차 이사회가 11 월 27 일 6 시 30 분 본원 교육실에서 정우식 이사장의 의사 진행으로, 상정된 안전 인 활동 보고의 건과 2020 년 사업계획의 건, 2020 년 예산안을 처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 서재복 회원(전주대 교육학과 교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소식 들

[11 월 교육이야기마당-교육정책 워크숍]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이 매월 1 회 추진해온 '교육이야기마당'. 11 월에는 교육정책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관 련 소식을 전하고 워크숍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교육정책 워크숍,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주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을 꿈꾸며, 지역교육정책 개 발과 전북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해온 본원 부설 전 북지역교육연구소는 11 월 20 일(수) 오후 6 시 30 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에서 『학교와 지 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회원, 교원, 지역시민단체 활동가 50 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구소 이미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교육 정책 워크숍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서재복 교수(전주대 교육학과)는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했으며 사례발표에서 송태규 교장(익산 원광중)은 '중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최옥희 교사(북일초)는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사례와 실천방안', 백형선 지부장(홍사단 전주 지부)은 '지역과 청소년단체에서 실 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문 제점을 분석하고, 전북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협력 방안을 찾아 실 천하자며 입을 모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자 주】 11월 20일,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주관하여 본원 교육실에서 진행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정책 워크숍 내용을 정리하여 실는다.



사회를 맡은 이미영 대표(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여는 말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관계회복’을 위한 민주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워크숍 주제를 민주시민교육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사회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당부로 말씀을 열었다.



‘전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서재복 교수(전주대 교육학과)

주제 발제를 맡은 서재복 교수(전주대 교육학과)는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 교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과 학교의 우수 사례와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전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으로 ① 민주적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체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②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행동양식을 기를 수 있으며 ③ 다양하고 갈등이 있는 복잡한 사회를 통합시켜주며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근거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은 ① 갈등이 제도화 되지 못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가 제기하는 문제, ②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중재할 신뢰 집단의 부재와 권위의 부재, ③ 반복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과 견해를 반영하는 편협과 편견의 강화, ④ 세계화, 다문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 확산, 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문제가 상호 악순환하는 이중의 불평등, ⑥ 행복 추구에 따른 기본적 문제마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잉주체화와 소비에의 포획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서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과 전라북도 조례와 특히 40여 년 전 독일에서 정립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교육의 최소 조건으로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금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로 오늘날 독일의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근간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외국, 우리나라 지자체, 교육청,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를 제시하고, 전북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요구되며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③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민주학교 운영을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여 일반화하고 학생 자치 확대,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시민학습권 보장을 통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실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 풍토 조성이 중요



송태규 교장(익산 원광중)

이어서 사례발표에서는 송태규 교장(익산 원광중)이 ‘중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발표하였다.

송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송 교장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박하지만 자신의 학교운영 사례를 제시하여 참석자들

의 공감을 얻었다. 실천 사례로는 원탁회의장으로 배치하여 의견 교환을 하는 ‘교직원 회의부터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노력’, 교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매주 수요일 방송하는 ‘귀공자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삭막해져가는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자부심과 웃음을 주고, 갈등관계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 화해하는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상장주기’ 행사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학생회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으로 축제 운영, 매점 줄서기 안내, 분실물관리 등 일상생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유학기제 시간을 활용하여 송 교장이 직접 12차시 수업을 실시하면서 중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소개하며 수업을 통해 변화된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고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와 실천의지 필요



최옥희 교사(복일초)

최옥희 교사(복일초)는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사례와 실천방안’에서 초등학교 특성상 학생 개개인의 교과 학습과 생활 전반이 학급담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의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비중이 큰 편이나 자칫 지식, 이해중심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 행사도 일회성 행사에 그쳐 체험과 활동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 교사는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사, 학생의 학부모, 사회 환경의 인식 변화 필요하고 ②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인식, 민주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③ 교사와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교실이라는 무대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학급자치 활동사례를 소개하면서, 3학년 초등학생이지만 충분한 민주자치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다음 쪽에 학급 어린이들이 제정한 <3-2반 두레꿈나무 인권선언> 붙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



백형선 지부장(홍사단 전주지부)

백형선 지부장(홍사단 전주지부)은 '지역과 청소년단체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발표하였다.

백 지부장은 지역사회 활동단체로서 홍사단은 지역사회에서 '시대적 요구인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사업과 제로 선정하고 ① 정치소양 교육과 토론, 토의 중심의 '청소년 정치학교' ② 청소년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통일공감여행' ③ 주제 토론, 독서, 영화 토론을 하는 동아리 중심활동인 '청소년 디베이트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3년 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정치학교에서는 고교생 대상으로 국회의원 초청강연을 실시했는데 만족도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0%였으며, "정치학교 활동이 즐거웠고, 청소년 정치참여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이 많았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백 지부장은 공모사업과 NGO 정신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학교와의 연계 협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시민, 교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하자고 다짐하였다.



3-2 반 두레꿈나무 인권 선언

두레꿈나무 반 모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적힌 권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우리는 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휴식할 권리가 있어요.

- ▶ 선생님은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동(크게 소리 지르기, 뛰어다니기, 통행을 방해하기)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 누구도 외모나 능력으로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 ▶ 어느 누구도 친구도 친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 ▶ 욕설이나 폭력을 해서는 안 되고, 욕설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우리는 심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 어느 누구도 친구의 결정과 작품에 대해 간섭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6. 우리 모두는 개인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어요.

- ▶ 우리는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묻지 않아야 합니다.

7. 우리는 내 물건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 ▶ 어느 누구도 개인의 물건, 특히 학용품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8. 우리는 두레꿈나무 반의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 ▶ 우리 모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에게 발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9. 우리는 이유 없이 비난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 우리 모두는 남의 의견이니 생각, 실력을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우리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 ▶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11. 우리는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 ▶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 ▶ 우리 모두는 청소를 맡은 날에는 성실하게 청소해야 하며, 누구도 자신의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남의 자리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편집자 주】 본원 향토역사문화 동아리가 주관하는 향토 역사문화 걷기는 11 월에는 가을 기행을 겸하여 부여로 송정그림책마을과 신동엽을 찾아 길을 나섰다. 향토 역사문화 걷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9시 도청 남문에서 출발한다. 회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가을로 가는 기행

- 부여송정그림책마을과 신동엽문학관을 찾아서 -



“마을을 한 바퀴 돌면 그림책 한권을 읽는 것과 같다.”

지난 11월 9일, 본원이 주최한 가을기행으로 부여송정 그림책마을 기행엔 회원, 가족, 시민 36명이 참여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안내하며 설명해주는 마을산책, 어르신들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시간, 양성평등 인형극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일정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특히 작가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신 “우리 할머니”, “내 친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어 마을에서 싸주신 생태도시락인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읍내로 이동하여 민족시인 신동엽문학관을 방문하였다.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신동엽문학관은 단순미를 살린 생태건축물이다. 문학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엔 시인의 시 “고향”의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의 고향을 생각했다.” 시 구절이 들어온다. ‘금강’, ‘껌데기는 가라’ 등 시대와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온 시인은 전주사범학교(전주교대 전신)를 다니기도 하여 전주교대에도 시비가 있다.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탐방기

이미영 (편집인)

가슴 뭉클한 가을 기행



우리 문화원이 선택한 가을 기행지로는 최고였다.

작은 마을공동체에서 보낸 시간이 한나절밖에 안 되는데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번 가을 기행지는 부여 송정그림책마을과 신동엽문학관이었다. 그래서 선지 유난히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전주에서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부여군 양화면 송정그림책마을에 도착했다. 거대한 정자나무들이 어우러진 마을입구에서 이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아담한 마을 정경을 바라보며 이장님께 마을 역사를 들었다. 400여 년 전 인조반정을 피해 박정에 할아버지가 햇볕 좋은 송정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이뤄졌으며 현재는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송정마을 8경 답사

우리 일행은 먼저 노인회장님의 안내로 송정마을 8경을 답사하였다. 마을 입구 동산에 있는 오백 살도 더 먹은 거대한 도토리나무 앞에 서니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오래된 우물 앞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래뜸 우물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으로 일행이 도착한 곳은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송정야학당이란 간판이 붙은 허름한 건물 앞이었다. 1925년 쯤 일제강점기부터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었다는 야학당이었다. 야학당이 있어 송정마을엔 문맹자가 한 명도 없다며 노인회장은 야학당 교가를 힘차게 불러주신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중앙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1942년 시작해서 1955년에 완공했다는 저수지 건설시 송정마을도 물에 잠길 뻔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서 지켜냈다고 한다. 저수지를 두른 산에는 올림바위가 있다. 출렁다리를 건너며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이굴을 보고 잠시 동심에 젖어본다.

호수 건너편으로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이었던 서동요 테마파크와 부여군청 소년수련원이 보인다.

눈시울 뜨거워지는 그림책 읽기

우리 일행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아담한 건물의 그림책마을 찾집에 들어갔다. 마을 어르신들이 쓴 그림책이 20 여권 놓여 있고, 어르신들의 그림 작품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그림책을 읽었다. 난 어느 할머니가 쓰고 그린 '누룽지'란 제목의 그림책을 읽었는데, 일제강점기 농사 지은 쌀을 수탈당해서 배고프고 서럽던 이야기였다. 그림책을 보노라니 저자인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직접 책을 읽어주신단다. 당신의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행복했던 어린 날과 15세 때 집에서 돌아가시는 할머니를 지켜본 기억을 쓴 '우리 할머니'를 읽어주실 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송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계신다는 할아버지가 '내 친구'를 읽으시며 먼저간 친구가 그리우신지 목이 멎 땐 우리도 같이 눈물을 닦았다.



생태도시락 점심

이윽고 점심식사 시간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썬 주먹밥 도시락이었다. 고리짜도시락 바닥에 깻잎을 깔고 주먹밥을 놓은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짱하였다. 환경을 생각하며 만든 생태도시락이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고 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인형극 공연을 하니 모이라고 한다.



양성평등 인형극 '삼녀의 꿈'

인형극은 '삼녀의 꿈'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공연이었다. 평균 80세 어르신들이 공연하는 인형극을 보는 것도 난생 처음인데, 주제가 양성평등이라니 더더욱 놀랍고 감동이었다. 기행에 함께 온 어린이들도 인형극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제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이다. 우리 일행은 아쉬운 마음으로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만든 차,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엽서를 구입하고, 다음 목적지인 신동엽문학관으로 향했다.

송정마을 어르신들의 그림책 만들기 도전은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그린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진행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 모두가 송정그림책마을에 마음의 고향을 하나 심고 온 가을날이었다.



교육현장의 나침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김춘옥 (사무처장)

지난 11월 18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자치’) 사무실로 찾아가 박연수 사무처장을 만났다. 단체를 소개해 달라는 말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역의 교육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교육자치와 올바른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라며 입을 열었다. ‘전북교육자치’는 도내 교육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올곧은 목소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전북교육 현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장과 취담

‘전북교육자치’는 2011년 창립을 시작으로 교육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사안별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 제시 사업으로 기초학력 미달, 지방교육 재정 확보, 소규모학교,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에 관한 토론회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단체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교원 학습연구년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 국민 알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자세,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수의 학생 갑질, 미성년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문제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난 전북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도교육청 소관 80개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현황 분석을 진행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의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는 후속 작업들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게 되어있는 위원회 구성, 100%에 이르는 원안 가결과 서면 심사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박 처장은 “교육부 권한 도교육청 이양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도교육청 권한이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기관 위주의 행정이 아닌, 단위학교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주민들과의 의견 교류와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위원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였고 이로써 드러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하였다고 한다.

단체는 또 회원,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회원들의 교육정책 토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는 회원들과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북교육 현장의 나침반 역할로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운영위원회

영원한 여성 조직 활동가, 항일투사 김마리아



김마리아(1891~1944)는 신여성 가운데 대표적인 항일투사로 민족적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3.1 혁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상해 망명 후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최초로 여성의원을 지냈으며 숨을 거둘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김마리아는 1891년 황해도 장연에서 김유방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부친은 고향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 계몽운동에 앞장선 개화 인사였고 친인척 중에는 민족운동에 투신한 이가 적지 않았다. 1910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와 정신여학교 수학교사로 활동하다 1915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중이던 김정화, 나혜석 등과 일본에서 조직된 첫 여성 항일단체인 조선여자친목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에서 1919년 2.8 독립선언 준비에 필요한 자금 100원을 모금

기증하였고, 2.8 독립선언대회에 참여했다가 도쿄 경시청에 연행돼 취조를 받았다.

2.8 독립선언문 10장을 미농지에 복사하여 기모노 띠 속에 감추고 2월 15일에 부산으로 건너왔다. 마침 상해 신한청년당에서 국내 독립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밀사로 온 큰고모부 서병호와 셋째 고모 김순애를 만나 향후 활동을 논의하였다. 광주로 가서 수피아 교직원들과 간호사들을 초대하여 여성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2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여 황애덕과 함께 이화학당 교사 박인덕, 신준려 등을 만나 도쿄 2.8 독립선언 소식을 전한 후 향후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1919년 3.1 운동 그날에도 황해도 봉산, 신천 등지를 돌며 지방 여성들의 만세시위 참여를 촉구하였다. 3월 5일 남대문역(서울역) 앞에서 학생들의 격렬한 만세시위가 있었는데,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3월 5일 정신여학교 기숙사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일경에 끌려가서 막대기로 머리를 얻어맞는 등 모진 고문을 당해 고막이 터지고 귀에 고름이 차는 메스토이병으로 평생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출옥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을 맡아 15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 2,0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키워갔다. 1919년 11월에는 거금 6,000원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내부자의 배신으로 단체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면서 임원진 52명이 체포되어 황애덕과 함께 3년형을 선고받았다.

병보석으로 출옥 후 더 이상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1921년 7월 10일 인천에서 배편으로 중국 상해로 탈출했다. 상해 도착 후 고모 간호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남경대학에 입학, 공부하며 상해 애국부인회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상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국회)에서 황해도 대의원으로서 선출돼 활동했으나 당시



김마리아수형표

임시정부는 내부 갈등으로 큰 위기에 빠져있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에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가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혼란만 가중되자 고민 끝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안창호 부인 이혜련의 도움으로 정착하여 1929년 시카고대학 사회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시절에도 1928년 2월 뉴욕에서 황애덕, 박인덕, 김매리 등 여학생들을 규합하여 근화회를 결성,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1930년 뉴욕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후 1933년 봄, 13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일제의 감시와 압박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원산 월슨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천주교, 기독교계 등이 신사참배에 나서며 대거 변절하지만 끝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도산 안창호는 “김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고문과 감옥 생활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고문 과정에서 한쪽 가슴이 인두로 지지지는 잔혹한 성고문을 당해 그가 남긴 한복 저고리는 안설패와 겹설패의 길이가 짝짝이다. 고문후유증이 재발하여 평양기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조국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13일 끝내 숨을 거둔다. 수양딸 배학복은, “화장해서 대동강 물에 뿌려 달라.”는 그의 유언을 따랐다. 1962년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가 졸업한 뉴욕신학교에서는 2007년에 ‘김마리아상’을 제정했고, 모교인 정신여중·고에는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흉상이 세워졌다.

유품이라고는 남은 수저 한 벌이 전부였던 김마리아! 50년의 길지 않지만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선연하다.

- 『조선의 딸 충을 듣다』 [정운현, 인문서원, 2016] 발췌 요약

[영화 이야기]

함께 보는 영화 세 편

조미송 (회원)

어떻게 하면 나의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영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참 오랜 숙제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영어 공부라면 재미있는 소재로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의 즐거웠고 행복했던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기억 속 세 편의 영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인도영화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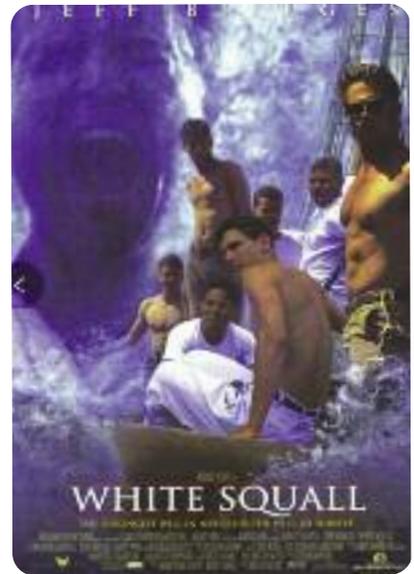
먼저 인도영화 <블랙>입니다. 인도판 헬렌 켈러 이야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 영화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세 소녀 미셀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낭만적 열정의 교사 사하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영국계 인도인 부유한 가정에서 동물처럼 살던 미셀을 사하이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빛과 소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작위적이고 감상적인 스토리 구성이 약간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면 구성이 무척 아름답고 어록에 남을 만한 명대사들이 줄줄이 꿰어 있습니다. 만약 미셀



이 가난한 천민계급의 딸이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인도는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과 자국의 오랜 신분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많은 생각의 기회를 주는 감동 영화입니다.

〈화이트 스쿨〉

다음은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화이트 스쿨〉입니다. 13 명의 미소년들은 각각의 이유로 자유학기제처럼 1년을 해양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선장 제프는 범선 알바트로스라는 배에 ‘장난이 아닌’ 항해 공부를 제공합니다. 트라우마로 고소공포증을 겪는 학생, 난독증으로 책읽기가 힘든 학생,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빠져떨어져서 친구 같은 돌고래를 죽이는 학생... 우여곡절을 겪고 거의 끝나갈 즈음, 전설적인 화이트 스쿨이라는 폭풍을 만나 제프의 아내를 포함해서 학생들 몇이 죽는 사고를 맞게 됩니다. ‘하나 가는 곳에 모두 간다.’가 새겨진 알바트로스의 학교 종을 청문회에 품고 가는 살아남은 학생들. 이미 결단과 책임을 배워낸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외우는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그리고 수능을 막 마친 고3들에게 인생의 영화로 강추하고 싶습니다.



〈눈발〉

다음은 우리 영화 차례입니다. 우리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스무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운영하는 독립영화관이 객사 시내에 있습니다. 국내외 아름다운 예술영화를 보는 풍부한 기회, 거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직접 소박하게 담은 독립영화까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이야기를 담은 창의적이고 솔직한 영화들입니다.

조재민 감독의 〈눈발〉이 그중 하나입니다. 민식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님과 함께 고성으로 이사를 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새로 전학 온 학교의 민식이 반에는 아버지가 살인혐의를 받았던 예주가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예주를 왕따시킵니다. 민식과 예주는 산에서 우연히 만난 새끼염소를 같이 돌봐주게 됩니다. 그 새끼염소는 산 밑에서 흑염소 건강원을 하는 아저씨네 염소가 산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아저씨에게서 새끼염소를 사는 방법만이 염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식은 아버지 교회에서 헌금을 흠치게 되고 반 친구들은 그 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올 민식을 기다리던 예주는 아저씨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민식은 너무 늦게 도착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못 본 척 도망가는 일뿐입니다. 예주는 민식과 흑염소 아저씨가 함께 예배보고 있는 교회 당에 새끼염소를 안고 흙탕물을 묻히며 걸어 들어갑니다.



침묵의 위선과 폭력 앞에 많은 생각이 교차됩니다. 영화는 암전으로 끝나서 현실은 침울하기 그지없지만 지켜보고 있는 우리 관객의 마음속에는 블랙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식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 현실의 우리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는 창의성 넘치는 독립영화! 파이팅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10 월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회원 동정, 행사 안내

- ▶ 한 해 동안 소중한 회비를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은 1 월초 발송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63-905-0218, 010-6337-9364

서재복(전주대 교수)
조미송(자영업)

- ▶ 전북의 민주화와 지역공동체 살리기 및 지역자치 활성화에 앞장서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11 월 22 일(금) 전주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창립 20 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도 정우식 이사장, 이미영 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정은숙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윤수 고문님 등이 참석하여 20 년을 함께해온 동지애를 확인하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12 월 행사 안내 ♣

[향토 역사·문화 걷기]

12 월 향토 역사·문화 걷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향토 역사·문화 걷기
12 월에도 어김없이
김제 백산저수지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습니다.
겨울 철새 고니(백조)도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시민 누구나 환영합니다.

일시: 2019. 12. 14.(토) 오전 9 시, 도청 남문 출발
장소: 김제 관망대-백산저수지 둘레길 (고니 등 철새 탐조)
참가비: 1 만원(점심 포함)
신청/문의: ☎ 905-0218, 010-7132-4606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송년회

회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겨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반가운 얼굴들 뵙고 싶습니다.

일시: 2019 년 12 월 18 일(수) 오후 6 시
장소: 근영목우촌 (전주 중화산동, ☎ 225-2140)
회비: 2 만원 / 문의/안내: ☎ 905-0218